**자기소개서**

**2016312107**

**문경진**

**1. 취미/특기/존경인물-본인의 취미/특기, 존경인물 및 존경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미/특기**

노래 부르기와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코인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르면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감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소확행’입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코인노래방 동아리에도 들어갔고, 이는 많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름 노래 부르는 데에는 자신이 있어서 보컬 동아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메이저리그를 즐겨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를 응원한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프레이밍과 오프너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운영과, 끊임없이 육성되는 유망주들이 만들어내는 끈끈한 팀컬러를 좋아합니다. 세이버매트릭스로 대표되는 야구 통계에 능통한 구단이라 자연스레 야구 스탯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 존경인물**

벤 조브리스트를 존경합니다. 전 템파베이 소속 선수였고, 오클랜드와 캔자스시티를 거쳐 현재는 시카고 컵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3) 존경이유**

다재다능함과 헌신이 이 선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비록 촉망받는 유망주 출신은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했고, 모든 포지션에서 상급의 수비를 보여줌과 동시에 공격도 준수하여 템파베이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이적 후에는 2년 연속으로 다른 팀에서 소속팀의 우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리더십도 보유한 선수입니다. (각각 30년, 108년만의 우승이었습니다.) 팀을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고 성품이 깊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2. 삼성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회사와 개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 기술우위 확보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으며, CIC 시스템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원들과 거리낌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돕는다는 점은 삼성 취업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삼성은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tool이 될 것입니다. 머신 러닝 및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발전된 질의 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빅스비 음성인식이나 빅스비 비전으로 task를 인식하고, 그 task에 대하여 1차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자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최고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속 가상인물도 가능) (1500자)**

[계층적 분류 모델을 새로운 문제에 도입]

학부 때 Data Challenge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이 팀을 이루어 교통사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matrix completion 문제가 주어져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델을 구상했어야 했습니다.

머신러닝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매일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고, 매일 조원과 토론하며 적합한 모델을 찾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대분류와 중분류가 동시에 주어진 데이터였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필요하였습니다. hierarchical classification problem에 관한 논문을 읽어 가며 계층별 분류 모델을 tensorflow와 xgboost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flat한 딥러닝 모델에 비해 10% 이상의 정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문제였지만, 다른 조원과 토의하여 더 좋은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체득했고, 연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 및 머신러닝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과정]

class의 접근 제한자가 private과 public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저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간의 괴리는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차이를 줄임으로써 나를 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낯을 가리던 성격이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의 private한 것들까지 접근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friend class를 찾기 위해, 고등학교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익혔습니다. 충분히 경청하고 말하는 습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익혔습니다.

덕분에 소위 말하는 ‘인싸’는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몇 명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겼고, 도우며 사는 것의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아마존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폐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성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작년 즈음에도 인공지능이 차별적 언어를 학습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서 이 기사가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bias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 최고의 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인공지능 역시 편향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를 보정하거나, 결과에 이러한 편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정이 필요합니다. 딥러닝의 경우 일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대체될 수는 있으나, 보정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편향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생각 역시 데이터 기술자라면 꼭 다루어야 할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하다 보니 overfitting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bias에 대해서는 overfitting보다는 덜 고려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bia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질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의 bias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파악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평가는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어 임베딩 과정에서 인과에 대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어 단위에서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접한 n개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post hoc fallacy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